무산 대종사 영전에 올리는 글

대종사의 원적, 슬픔 아닌 준엄한 죽비

부처님 오신 사나흘 지나 돌연히 날아든 스님의 입적 소식을 받잡고 소제(小弟)는 눈물보다는 황망하고 허탄한 마음 억제하기 힘들었습니다. 그간 맺은 사적 인연을 떠나 지금 우리 민족이 처한 엄혹한 현실을 직시할 때 무엇보다 또 한 분 시대의 큰 스승을 잃었다는 상실감이 앞섰기 때문입니다.

돌아서서 냉정히 성찰해보면 당신의 부음은 슬픔이 아니었습니다. 좌절도 아니었습니다. 우리 중생의 머리에, 가슴에 내리치는 한 준엄한 죽비소리. 할(喝)! 그만큼 가르쳤으면 이제 너희도 또한 스스로 깨우쳐 이 땅에 불국정토의 이상을 실현하라는 당부 아니겠습니까?

사문(沙門)이 일생을 가는 도정에는 여러 갈래 길이 있을 것입니다. 어떤 대덕은 홀로 선방에 은거하여 한 생을 오로지 참선수행으로 바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대덕은 생활 속에서 불성을 실천하여 한 몸을 중생 구제하는 일로 바치시는 분도 있습니다. 평생 사문의 길을 걷는 동안 당신은 자주 당신이 '참 중'이 아니라 하셨지만 소제가 보기로 그 어떤 대덕보다 당신은 이 양자의 길을 하나의 사표로 성실히 걸으신 분이셨습니다. 실제 현실에서 진여(眞如)를 찾고 또 참선 수행으로 깨달음을 얻으신 우리 시대의 보기 드문 보살행의 사문이셨습니다. 입적을 앞에 둔 80 노구에도 무애자재하게 매년 안거에 드신다는 것이 어디 흔한 일이겠습니까.

어느 날 소제는 당신을 모신 자리에서 무심결에 '큰 스님'이라는 호칭을 사용다가 야단을 맞은 적이 있었습니다. "불가에서는 모든 중생들이 평등하여 높고 낮음이 없다. 물론 선림(禪林)의 수좌들이나 문중의 사문(沙門)들 사이에서도 어떤 차별을 두어서는 아니 된다. 나는 혹시 경문은 더 잘 외울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음식을 만드는 일은 이 절의 공양주를 따라갈 수 없다. 절의 사무를 보는 사무장은 내가 할 수 없는 컴퓨터를 잘 다루고, 절의 셔틀 버스 기사는 내가 못하는 운전을 잘하니 이 절간에 누가 더 크고 고귀할 수 있겠느냐. 세상의 이치 또한 이와 같다. 이 세상 두두물물, 모두가 평등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옆에서 지켜보면 당신 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거기에는 높은 관직을 가진 권력가들도, 돈이 많은 기업가, 유식한 지식인, 문화인들은 물론 이름 없는 중생, 장삼이사(張三李四)의 가난한 민초들이나 의지처 없는 노약자 등 일로 헤아릴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어떤 때 소제는 가끔 당신은 하나의 큰 정자나무요, 당신을 찾아 몰려든 대중들은 그 나무에 깃을 친 뭇 중생들이 아닐까 하고 생각해 보곤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그 정자나무는 분명, 〈벽암록(碧巖錄)〉 제18칙, 혜충(慧忠) 국사가 당나라 대종(代宗)에게 던진 화두에 등장한 바로 그, '무영수(無影樹)'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언제인가 당신은 제게 또한 당신의 불가적 깨달음이 사실은 수행시절 함께 생활했던 나병 환자와의 삶에서 비롯했다는 이야기를 들려 준적이 있었습니다. 나병이란 신체가 짓무르고 훼손되어 결국은 그 육신이 이 세상에서 사라지는 병이니. 이야말로 '나(我)'를 무화(無化)시키는 일 즉 제법무아(諸法無我)의 경지를 가리키는 비유가 아니겠습니까?

수행·자비행 아우르신 '참 스승'
어느 날 '큰 스님'이란 호칭에
"절간 어느 누가 더 크냐" 일갈
항상 대종사 주변엔 사람들 몰려
중생 보듬은 큰 정자나무 같았다

生死一如… 무엇을 더 탄하겠는가
대종사 가르침, 행동으로 실천해야

선(禪)의 제3조 승찬(僧璨)의 별칭이 적두찬(赤頭璨)이었다는 사실은 결코 우연이 아닐 것입니다. 저로서는 한국 선종의 비조(秘祖) 도의 선사의 정기가 서린 신흥사 문중에서 조계종단의 새로운 선풍을 진작시킨 당신이야말로 현대 한국불교의 승찬이 아니실까 생각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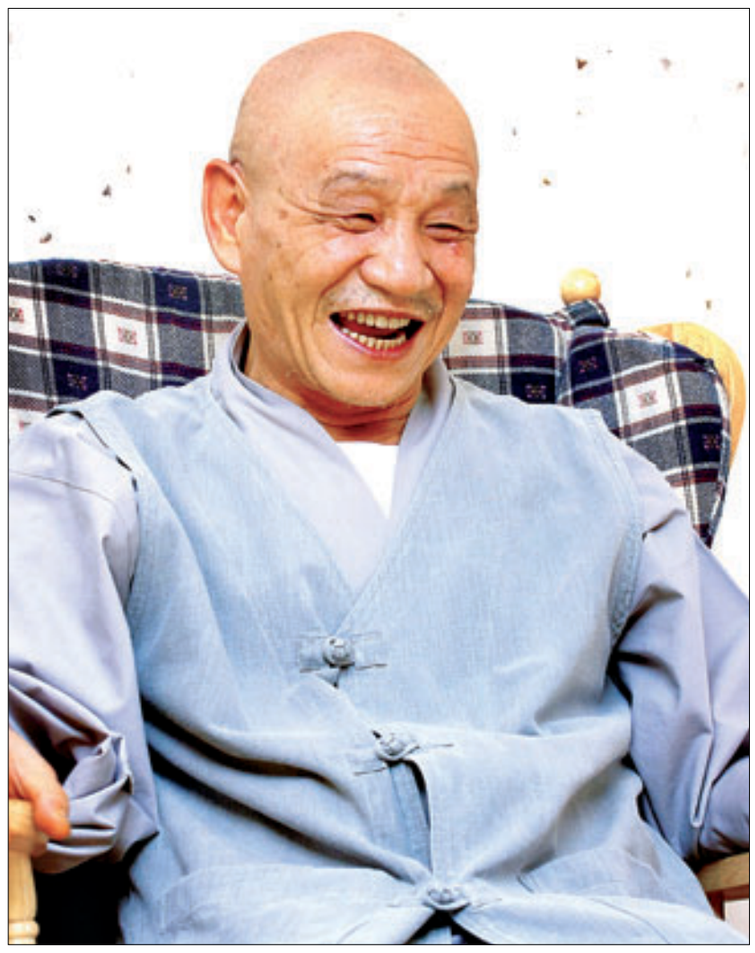
생사가 일여이니 더 이상 무엇을 탄하며 무엇을 서러워하겠습니까. 남겨진 우리로서는 스님의 그 크고 고귀하신 가르침에 마땅히 힘써 행동으로 실천할 따름입니다. 부처님오신날에 맞추어 입적하신 스님, 저세상에서도 필시 성불하시어 무간지옥 우리 중생들을 무량 제도하시옵소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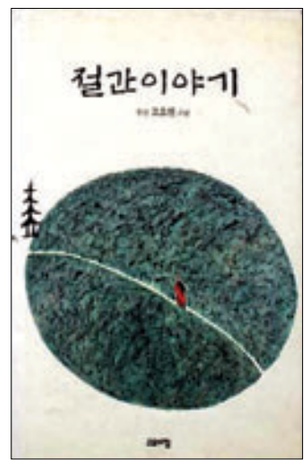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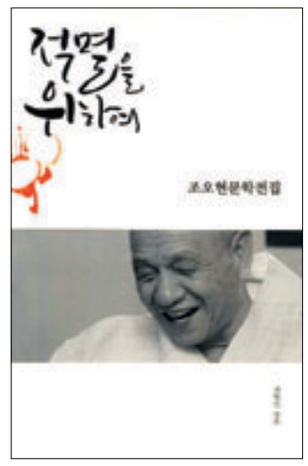
오세영
(시인 · 한국예술원 회원)











'한글 禪시조'로 '時禪一如' 경지 보이다

학위논문으로 살펴본
무산 대종사 詩 세계

신성민 기자 motp79@hyunbul.com

설악 무산 대종사는 세간의 대중에게는 '조오현'이라는 필명이 더 친숙할 수 있다. 1968년 〈시조문학〉으로 등단한 이래 대종사는 '선'과 '시조'를 함께 병행했던 삶을 살아왔기 때문이고, 이를 통해 '선시조'라는 새로운 문학사적 지평을 열기도 했다.

오세영 시인은 저서 〈현대시와 불교〉에서 무산 대종사 작품세계를 이렇게 평가한다. "오현의 시가 우리 문학사에서 하나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면, 그것은 시조 시형에 의한 선시의 현대적 확립이라고 말해야 한다."

이런 이유로 무산 대종사의 시조 연구는 꾸준히 이뤄졌다. 평론이나 연구 소논문들 이외에도 4편의 석·박사학위 논문들도 발표됐다. 그만큼 무산 대종사의 작품세계가 높게 평가받고 있다는 방증이다.

올해 중앙대서 박사학위를 받은 배우식 시조시인은 무산 대종사의 선시조의 특징과 유형을 고찰했다.

"불립문자 언어도단을 최고의 가치로 보는 '선'과 정형성의 '시조'가 만나 형성된 것이 '선시조'"라고 정의한 배 시인은 "조오현의 선시조는 평생을 선수행하며 닦고 비우고 또 비우며 닦아온 마음 혹은 영혼의 울림이며 표현이어서 쉽게 그 속뜻을 보이지 않는다. 조오현의 선시조가 궁극적으로 지향하고 있는 것은 깨달음의 경지인 해탈이기 때문"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무산 대종사의 선시조의 사상적 배경에 반야공·중도·불이·화엄·연기·불살생 등이 복합적으로 자리잡고 있음을 밝혔다.

특히 불살생에 대해 배 시인은 "조오현의 선시조에서 보여지는 불교의 생명에 대한 존중과 사랑은 깊고 넓다. 눈에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 생명존중의 대상으로 삼고 있음을 작품을 통해 보여준다"면서 "불살생의 승화는 결론적으로 사랑과 자비가 가득한 생명존중의 세계임을 보인다"고 설명했다.

대종사 작품의 궁극점 '해탈'
공·중도·화엄 등 사상적 배경
"시조 선시 현대적 확립 이뤄"

그러면서 무산 대종사가 '우리 문학사상 최초의 선시조 창작자이자 완성자'라고 상찬한다. 이에 대해 배 시인은 "조오현은 깨달음의 순간을 형상화한 수많은 선시조를 선보여 본격적인 한글 선시의 전범을 제시했다"며 "불가 전통의 한시 형식을 과감히 깨뜨리고 새로운 형식인 한글 선시조를 최초 발표한 것은 놀라운 일"이라고 강조했다.

'조오현 선시 연구'를 통해 2014년 경기대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김민서 박사는 무산 대종사의 첫 시집 '심우도(1978)'부터 '아득한 성자(2007)', '비슬산 가는 길(2008)' 등 270여 편의 시를 대상으로 분석해 대종사의 문학세계를 규명했다.

그는 대종사의 선시를 △조사활구의 고칙시(高則詩) △자연경계의 선취시(禪趣詩) △중생구제의 우범시(又凡詩) △승속일여의 선화시(禪話詩)로 분류하고 이를 통해 "오현 스님의 시는 일종의 돈오, 자성에 대한 직관적 지각을 특징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오현은 시인이면서 선승이므로 종교와 문학이 분리되지 않고 평등하게 용해돼 있다. 그의 선시는 선과 시가 균형을 이룬다"고 평가하며 "고려시대 교화를 목적으로 불교와 문학의 결합으로 승화시킨 혜심의 선시를 작금에 이르러 조오현이 현대 선시로 구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유순덕 씨의 박사학위 논문 '현대시조에 나타난 형식미학과 생명성 연구—이병기, 조운, 김제현, 조오현을 중심으로'는 각 시인의 '형식미학'과 '생명성'에 주목한다. 특히 무산 대종사의 작품에 대해 "단시조와 연시조, 사설시조를 정격으로 창작하면서도, 점차 변용 및 확장으로 나아가는 형식"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조오현은 시인이자 구도자의 길을 걸으며 순환적 생명성을 추구한다. 직관적 초월의식을 통해 집착과 욕망에서 문제가 비롯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깨달음과 구도의 시를 창작한다"고 평가했다.



▲ 종로구 창신동 안양암 극락왕생도 <서울시 유형문화재 188호>

BTN 불교TV가 만든
불교계 유일의 불교전문 장례!!! 불 국 토 상 조
불국토상조는 영가들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진심을 다합니다.
지금 바로 전화 주세요.
불국토상조가 불교문화를 이어갑니다.
한국불교 대표방송 BTN이 설립한 불국토상조
가입상담 1577-7675

"불국토상조만의 불교전문 장례서비스 특징"

스님의 시다림 봉사
입관 및 성복제를 하는 동안 스님이 여법한 염불 집전을 해드립니다

장엄한 제단장식
부처님의 무한한 공덕을 나타내는 번(幡)장식을 통해 제단의 불교식 장엄함을 구현합니다

불경수의/ 지장보살상 위패
영가의 극락왕생을 위하여 지장경(금박)이 새겨진 불경수의와 지장보살상 위패를 제공합니다



대리점주 (장례포교사)를 모십니다. 상담문의 02-525-3370
부처님오신날 봉축할인 4.23 – 5.22(중복할인 불가)

BTN 불교TV 불국토상조
불국토상조는 공정거래위원회의 표준약관을 준수하여 회원의 소중한 상조납입금을 법률에 따라 안전하게 예치하고 있습니다.
상조관련 중요정보사항은 홈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www.btnlife.co.kr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97 4층 / 대표이사 구본일
선불식 할부거래업 등록 서울-2011-제 68호